

Bluetooth 통신기술 급부상

특허청,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신중 … 특허 114건 출원

1998년2월 발족돼 현재 2000개가 넘는 회원사를 거느린 SIG(Special Interest Group)에 의해 제안된 Bluetooth가 단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SIG에는 에릭슨, 노키아, 모토롤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영향력 있는 관련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블루투스가 단거리무선통신에서 세계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술 특허출원도 1999년 3건에서 2000년 67건, 2001년5월 현재 44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보여주고 있다.

블루투스 명칭은 10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했던 헤럴드 블루투스(Harald BlueTooth)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스칸디나비아를 통일했던 바이킹처럼 서로 다른 통신장치간에 무선으로 연결하는 통합장치라는 뜻과 호환성을 가지고 단일 장비로(예를 들면 PDA)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블루투스는 세계 공통으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인 2.4GHz를 사용하며, 지정밴드 안에 1MHz 단위의 채널이 79개 설정되어 1초에 1600번 가량 채널을 바꾸어가며 통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10m내의 블루투스 송수신장치들은 별도의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아도 상호간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특허 출원현황을 보면, 총 114건 중 대기업 출원이 68건으로 약 60%를 차지하나, 2001년 들어오면서 특허에 집중되고 대기업 출원이 64%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블루투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001년 1~5월 출원으로 2001년 출원건수를 추정하면 약 106건 이상으로 2000년과 비교하면 15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기업 출원도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블루투스 관련기술 출원현황

(단위 : 건)

연도	1999	2000	2001. 5	합계
합계	3	67	44	114
특허	2	56	41	99
실용	1	11	3	15

+ 발명의 명칭에 따른 자료로 실제건수는 증가될 수 있음

< Chemical Daily News 2001/07/27 >